

# 종합·해설



전대 주자들 8인8색 표정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당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가한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다양한 표정으로 대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정세균·최재성·박주선·천정배·이인영·손학규·조배숙 후보) /연합뉴스

## 민주 전대 '빅3' 박빙속 막판 세몰이 치열

10·3 민주당 전당대회가 일박하면서 혼전 양상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차기 당권 유력주자인 손학규·정세균·정동영 후보 등이 이른바 '빅3' 간 막판 세 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이들은 저마다 지역 및 계파별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을 이끌어 위해 노력하는 등 경선 막판 승세를 잡기 위한 전술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빅3'는 27일 현재 자신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교묘히 알리고 있다. 하지만, 지지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대의원 여론조사 경우 여론조사 표본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당 안팎의 일반적 분석이다.

이 같은 혼전 상황 속에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출신 모임인 청정회(회장 이용섭 의원)는 26일 이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1인2표 가운데 한 표를 정세균 후보에게 몰아주는 쪽으로 사실상 의견결

을 이룬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공개적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일부 회원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 후보 측은 대의원별 일대일 접촉을 강화, 저인망식 바닥 출기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 친노인사인 대구 출신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조직의 궤재로 불리는 박양수 전 의원이 각각 영남, 호남에서 상주 하다시피 하며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한 캠프 프 인사는 "정세균 후보가 지역위원장 등 상층조직, 정동영 후보가 바닥조직에 강하다면 일반 대의원 사이에선 이미 손학규 대

표가 구축됐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 측은 막판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도권 등에 포진한 호남향우회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주류 인사들이 지난 주말 서울과 인천시당위원장 등으로 잇따라 선출된 것을 놓고 "당권과 심판권이 수도권에 확산되고 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지지층이 겹치는 정세균, 손 후보 간의 승기 잡기 및 '영토 전쟁'도 격화되고 있다. 경북지역 지역위원장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세균 후보에 대한 공

개지지를 선언한다. 영남에서의 우위를 자신해온 손 후보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반면 손 후보는 호남에서의 절대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손 후보 측 인사는 "손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호남 민심이 수도권에도 도착했다"며 "수도권 등 양측에 걸쳐 있는 부동층 상당수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양측은 대표적 친노 인사인 이광재 강원지사장과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나선 조정식 의원을 놓고도 서로 "우리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 상으로는 손 후보가 상당 부분 앞서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당 대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16일간 이어져 온 전당대회 지역유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방송토론회에 집중할 뒤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목포출신 한 안형환·부산출신 민주 전현희 대변인 여야 입 삼점살로 '상생 만찬'

여야 대변인이 27일 18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삼점살에 소주잔을 기울이며 상생방안을 모색, 주목을 받았다.

한나라당 안형환,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저녁 여의도의 자그마한 식당에서 여야 출입기자들과 함께 정국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상대 정당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맡은 여야 대변인이 이처럼 화합모드로 나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상호 대변인이 한나라당 이계진, 나경원 대변인과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지만 18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자리는 대변인으로서 느끼는 애환과 고충에 대해 모처럼 편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기자들로부터 조언을 들어보고자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사람은 임명 당시 호남(목포) 출신 한나라당 대변인과 영남(부산) 출신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대화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전제한 뒤, "상대를 비판하더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어 폭력은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전 대변인은 "평소 날카로운 공방을 벌이는 사이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는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연 원내대표가 각당의 원내사령탑을 맡은 뒤 형성된 여야 상생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원희룡 "총리도 선출직으로 해야"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27일 "총리는 임명제가 아니라 국회가 선출하든, 국민이 선출하든 헌법을 바꿀 때가 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국회의 총리 인사청문회 때마다 여야간 격한 공방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를 수임해 올 수도 없고, 국산 총리 중에는 저 정도면 가장 훌륭한 분 아니냐"며 "김 후보자 본인이 진실을 갖고 (청문회에) 잘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사무총장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도

지사의 당 공식회의 참석을 가능토록 하는 당헌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당의 소통·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결과적으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당의 회의에 나와 잘 활용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쟁은 무제한, 다다익선이라야 하며 박근혜 전 대표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다자경쟁구도가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번 당헌 개정은 사·도지사 본인과 관련된 현안이 있을 때 의견을 개진할 권리 근거를 만드는 것이므로 지나친 확대 해석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최고위 요청편 시도지사 당회의 출석

### 한나라 당헌 수정안 확정

한나라당은 당 소속 사·도지사에게 중앙 당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27일 하루종일 논란을 빚은 끝에 '최고위가 요청할 경우'를 단서로 달아 의결하기로 결론을 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최고위위원회에서 사·도지사의 최고·중진회의 참석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이 합의, 당 소속 사·도지사가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 주요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

는 내용의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오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안은 친박(친박근혜)계 서병수 최고위원이 낸 것으로, 사실상 당 소속 사·도지사의 중앙당 회의 참석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친박계의 반대는 당 소속 사·도지사의 당 회의 참석이 차기 대권 주자 군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입지를 강화,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주류 친이(친이명박)계의 포석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일의원 축구대회 11월 도쿄서 열린다

여야 의원 87명이 소속된 '국회의원축구연맹'이 오는 11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중의원들로 구성된 의원 축구단과 친선 한일전을 펼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축구를 통해 한일 의원 간 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7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됐다.

하지만 지난 2006년 6월 독일 월드컵 기간과 때를 맞춰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가진 이후 한일 양국의 정국교체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4년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05년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 측이 행사를 거부, 중단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번 한일 의원간 친선 축구경기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이자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40명이 출전할 예정이며, 한나라당 이은재 배은희 이해훈 정욱임, 민주당 조배숙 의원 등 여성 의원도 선수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근 의원축구연맹 사무국장 겸 총감독은 "최근 일본을 방문, 일본측과 한일 의원 정기전을 다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상일루점(법률공인 상담실) 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4277-5110 종로2기점(금강제약) 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 시민회관) 031-421-2288 부평점(부평역) 031-617-5110 수원점(남문) 031-246-5110 의정부점(북문)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방2001) 서울 영등포점(사면로) 051-818-8800 서면점(명동역) 031-336-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금민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63문화점) 032-329-4400 부산 진주점(구 동명구청) 051-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 053-426-1511 남양주점(아파트) 031-245-7575 경북 포항점(국기리) 054-244-5110 안동점(구 인동동) 054-659-2248 광주 광주점(구 도림) 062-225-5110 광주점(백운동) 062-851-4477 전남 순천시(중앙시장) 지혜상가점(구) 061-752-8845 전북 전주점(인제대학교) 063-252-5728 군산점(구 시청) 063-446-0198 익산점(백사시장) 063-638-5000 남원점(사당네거리) 063-632-2826 대전 대덕점(도청)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충북 천안점(천안역) 041-553-2888 광주점(광주주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충로) 043-222-1177-8 충청점(삼천리) 043-852-1414 강원 강릉점(속리사거리) 033-647-0588 춘천점(철도호텔)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림로) 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통 CE마크 인증, GMP 의료용기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광주 구도청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1225-5110 **광주 백운동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1651-4477 **순천시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1752-8845